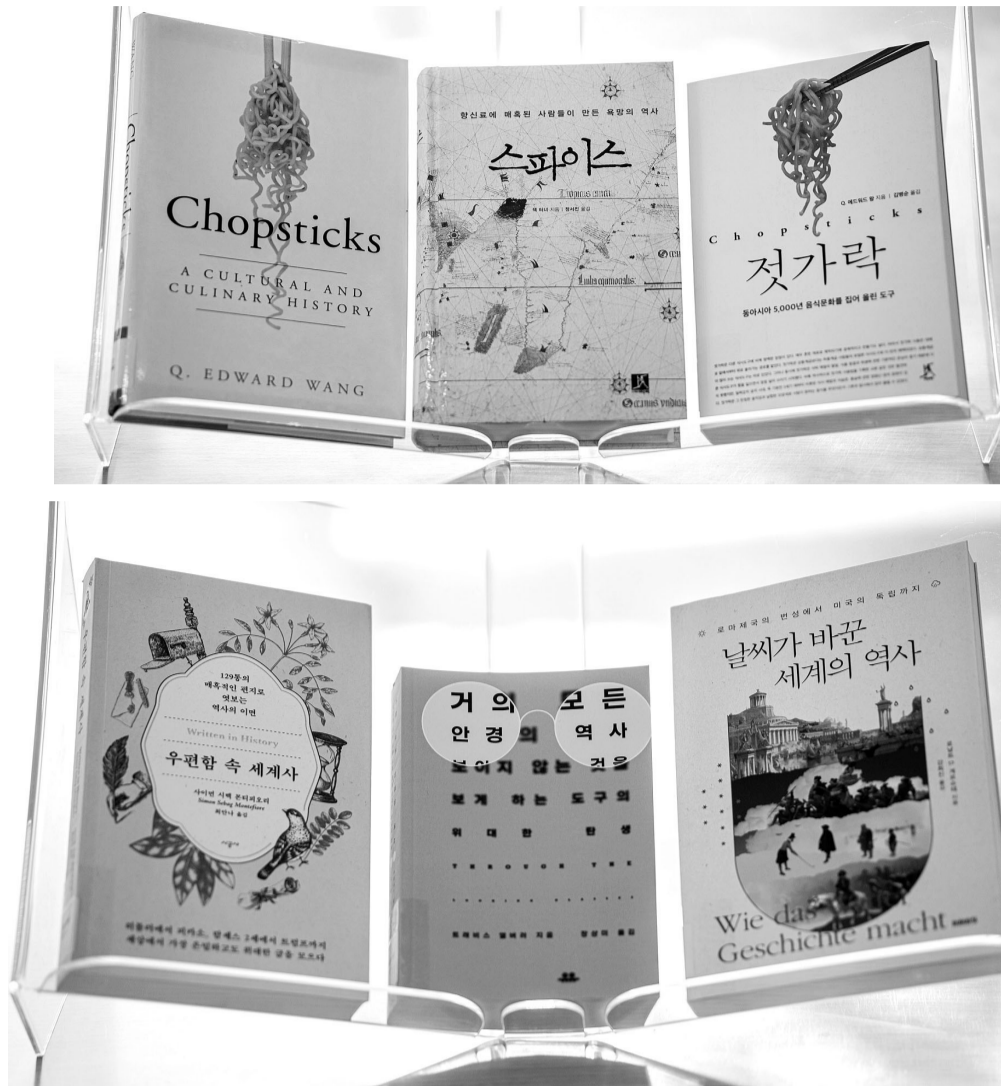


# 알면 더 맛있는 아시아 향신료와 음식

ACC재단, 5~6월 북큐레이션  
'스페이스...' 등 도서 40권 소개  
한·중·일 젓가락 기원·역사도



ACC는 5~6월 북큐레이션으로 아시아의 향신료, 젓가락 등을 모티브로 한 책들을 도서관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ACC 제공)

향신료는 독특한 향 때문에 고대와 중세시대 신성이 부여된 식재료다. '영혼의 조미료'였던 향신료는 입맛을 돋울 뿐 아니라 와인의 신맛을 제거해 주기도 했다. 귀한 조미료였지만 값이 비싼 탓에 권력과 부를 드러내는 기제로 상징화되기도 했다. 잭터너가 쓴 '스페이스: 향신료에 매혹된 사람들이 만든 육망의 역사'라는 책에는 향신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신비로울 뿐 아니라 미지의 향이었던 향신료는 '육망'을 드러내는 식재료로 기호화했다. 향신료를 둘러싼 쟁탈전은 치열했고 중세 이후 전개된 탐험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이 향신료의 원산지였던 아시아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던 것은 그러한 연유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향신료와 음식에 관한 역사와 미각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5-6월 북큐레이션(도서관 도서추천서비스) 주제를 '아시아 향신료와 음식'으로 정한 것.

도서관 이벤트 홀에서 아시아 음식 문화를 다룬 도서 40여 권을 소개한다.

앞서 언급한 '스페이스: 향신료에 매혹된 사람들이 만든 육망의 역사'를 포함해 젓가락을 모티브로 다룬 '젓가락: 동아시아 5000년 음식문화를 집어 올린 도구'도 살펴볼 수 있다.

Q. 에드워드 왕이 쓴 이 책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개국이 사용하는 젓가락의 기원과 역사를 조명한다. 세계 역사상 독특한 문화를 구축한 한중일 음식 이야기를 새롭게 들려준다. 음식과 역사는 거대 담론에 관한 이야기 뿐 아니라 일상 속 편지와 날씨 등을 소재로 구성된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도 만난다.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리의 '우편함 속 세계사'는 고대 이집트와 로마 외에도 오늘날의 미국, 인도, 중국,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간과 장소를 아우르는 100여 통의 편지를 엮었다. 편지를

매개로 황후를 비롯해 여배우, 작곡가, 시인 등 편지를 쓴 사람의 다양한 일면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저자는 서문에서 바이런 경의 말을 언급하며 "편지 쓰기는 고독과 좋은 동행을 결합하는 유일한 도구"라는 말로 의미를 부여하며 "편지 모음을 읽는 이들이 그 속의 용기, 아름다움, 진정성에 감탄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이밖에 로날드 D. 게류슈트의 '날씨가 바꾼 세계의 역사'는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재앙이 부상하고 있는 작금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준다. 대기

근을 비롯해 홍수와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는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돼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북큐레이션에서는 '거의 모든 안경의 역사'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향신료와 음식을 주제로 한 책은 많은 이들에게 흥미와 아울러 음식 문화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인간의 문명과 역사를 다룬 책은 여러 분야에 영감과 상상력을 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왜 산에만 가십니까?"

10여 년 전 무등산 중심사 김복에 자리한 무등현대미술관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큼직하게 새겨진 문구는 행인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당시 현수막을 접한 시민들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산에만 가'는 등산객을 탓하는 것인지 궁금해 했다.

하지만 저간의 사정을 들여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2007년 서양화가 정송규씨는 하루에도 수백 여명의 등산객이 지나가는 목 좋은 곳에 미술관을 건립했다. 전업작가였던 정씨는 수십 여년 전부터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많은 사람

다. '봄을 여는 소리, 함평 나비 축제'로 열리고 있는 축제에서는 다양한 불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져 그 어느 해 보다 관광객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하지만 누구보다 나비축제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 바로 축제가 열리고 있는 함평나비엑스포공원에 들어선 함평군립미술관이다. 번잡한 축제장에서 한발짝 떨어진 미술관은 연일 밀려드는 관람객들로 '즐거운 비망'을 지르고 있다. 축제를 만끽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행사장 옆 미술관'도 방문해 나비축제 기념 특별기획전 '풍경과 감정이입'(4월28~7월2일)을 관람하며 색다른 즐거움을

## '나비 축제'에서 예술을 만나다

들에게 예술의 향기를 전하는 문화이웃들을 꿈꿨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걸, 아무리 좋은 전시회를 기획해도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는 산뜻한 복장의 등산객들로 거리가 붐볐지만 미술관은 개점휴업상태였다. 초창기에는 미술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언젠가는 미술관에 들러주겠다'하며 몇년을 기다렸지만 등산복 차림으로 전시장을 방문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정 관장은 고민끝에 육체의 건강만 챙기지 말고 '마음의 건강'도 지키자는 뜻에서 등산객의 무관심을 꼬집는 '문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주 오래전의 일화를 새삼 곱씹어 낸 건 지난 주말 함평나비축제(이하 나비축제)에서 뜻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접했기 때문이다. 전남의 대표축제로 자리잡은 나비축제는 명성을 실감케 할 만큼 수많은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평상시 하루 평균 150명이 방문한 미술관은 이번 나비축제 기간에만 무려 10배 이상인 1일 2000여 명이 찾았고 있다. 연간 함평군립미술관의 방문객 8만 여 명 가운데 봄 나비축제와 가을 국화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만 4만 여 명이 다녀간다고 하니 축제의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아마도 정송규 관장이 무등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기대했던 게 이런 모습이었을 터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았다. 지금 담양, 순천, 보성, 함평, 곡성 등 남도 곳곳은 각양각색의 축제와 이벤트가 펼쳐지는 만화방창(萬花方窗)의 세상이다. 특히 이들 축제장 인근에는 색깔있는 미술관들이 많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여행의 축제 현장으로 떠날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의 미술관도 함께 둘러보시라. 분명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두 배의 감동을 얻게 될 것이다.

<문화·여행칼럼, 선임기자>

### 제 68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국악 입상자		▲ 동상 2 김아린(전주반월초3)	1 김하빈(광주예술중1)	2 신소을 외 11명(광주송원초)	◇ 기악(대금·소금) 초등부 ▲ 은상 1 박찬 외 2명(여도초6)
<심사위원> 윤종호(나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정선옥(전남도립국악단 상임단원)		◇ 가야금 산조 초등 3.4학년 ▲ 금상 2 김리안(전주양현초3)	▲ 은상 1 신소을(광주송원초6) 2 최시우(광주송원초5)	▲ 은상 1 손가은 외 11명(신암초)	◇ 기악(해금) 초등부 ▲ 은상 1 이의진 외 6명(여도초)
◇ 성악(판소리) 초등 3.4학년 ▲ 은상 1 나호재(전주양현초3) 3 최지우(전주양현초3)		▲ 동상 1 김현준(삼례시초3)	◇ 가야금 병창 초등 1.2학년 ▲ 동상 1 윤지향(풍암중1)	◇ 25현 가야금 초등부 ▲ 최고상 1 신가은 외 6명(여도초)	◇ 기악(태평소) 초등부 ▲ 은상 1 김지문 외 2명(여도초)
		◇ 가야금 산조 중등 1.2학년 ▲ 금상	▲ 금상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오덕렬 작가 '수필 한 편' 오디오북 출시

광주교 교장을 지낸 오덕렬 수필가는 수필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다. 그는 '수필이 창작적 진화를 거듭해 탄생한' 결과물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아울러 수필의 현대문학 이론화를 모색하며 항상 창작의 관점으로 글쓰기를 모색해왔다.

오 수필가의 '수필 한 편'(풍백미디어)이 오디오북으로 출시돼 눈길을 끈다. 엘리사벳의 서재(대표 이희숙)는 최근 오덕렬 수필가의 '수필 한 편'을 오디오북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오디오북에는 그의 대표작인 '모자도'(母子圖)를 비롯해 '목련', '간고등어' 등 모두 45편의 수필이 실려 있다. 각 작품과 어울리는 울림을 위해 김인환, 이희숙 성우가 녹음했다. '힐링이 필



요할 때'라는 부제처럼 이번 오디오북은 어린 시절 잠들기 전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옛날이야기처럼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한편 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교육자인 오 수필가는 한국수필 추천으로 등단했으며 계간 '散文의 詩'를 통해 '산문의 시 평론' 신인상을 수상했다. 수필집 '복만동 이야기', '고향의 오월', '향우네 갑시다' 등과 평론집 '수필의 현대문학 이론화', '창작수필을 평하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